

시민의 탄생

역사적 경로와 의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위를 가시게 할 봄을 기다리던 때가 언제인가? 그 봄은 잠시 우리 주변에 머물다가 갔고, 우리는 벌써 여름을 지겨워하고 있네요. 곧 살랑살랑한 가을 바람은 우리를 어디로 유혹할까요. 그 유혹 뒤에는 긴 겨울의 추위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한국에서 자본주의 근대문명이 자라는 동안,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을 자랑하는 자본주의문명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시민의 <덕목>은 무엇인가?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사회 및 국가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경쟁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배타적으로 강요하고 타자의 그것을 부정하는 소모적인 <惡戰>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서 한국의 시민의 탄생과정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시민의 탄생 과정은 타자를 밀어내는 배타의 과정이 아니라 여러 다른 타자들이 함께하는 통합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통합의 과정을 외면하고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작업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근본주의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민족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반공주의입니다. <도덕>은 필요합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원칙이면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시민의 탄생 과정은 새로운 <교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양>을 통해 우리의 <도덕>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면서: 한국을 둘러싼 내외의 위기적 징표들

- 하나는 한국의 출산율
2022년 기준, 0.78
- 연령별이 인구수
인구수가 적은 연령대 0-4세 사이 2020년 177만명, 2023년에는 137만명,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는 45-49세대는 438만명에서 392만명.
총인구 인구 5천 182만명에서 30만명 축소.
- ◆ 유아 청년 장년 인구 줄어듦고 노인 인구 증가.
- 한국부채율...
104% 국내총생산 GDP 대비, 여타 선진국들보다 높음(발표문 주2)
- 미국과 중국 간의 GDP 격차 축소(달러)
1990 5조 9000억, 3900억
2020 20조 9300억, 14조 7300억
- 미국 공공부채
1987 2조 3000억 2022 32조 4000억
- 연방준비제도 대차대조표
1987 2700억, 2022 9조
- ❖ 중앙은행화폐증가속도 경제성장보다 7배 빠름(주4)

베이비 붐 세대(50,60,70년대생)-'선배시민(?)'

-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성과를 누린 세대
- 과잉된 이념, 파괴적 분열을 조장: 앞선 세대들이 세운 공든탑을 밑동부터 파헤침
- '역사전쟁'은 과잉된 이념들이 충돌하는 무대
- 성찰하지 않는 세대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에서 "국가는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간의 파트너십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주3 참조)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프랑스혁명의 한 주역이자 현대공법이론의 선구자로 알려진 E.J. 시에야스의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박인수역, 책세상, 2003)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는 왜 제 3신분이 특권계급을 대신하여 사회와 국가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 제3신분은 아직까지도 팔뚝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건강하면서도 억센 인간이다. **특권적 신분만 제거된다면** 전체 국민은 보다 열악한 어떤 지위가 아니라 보다 나아진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전체이되 구속되고 억압된 전체이다.** 특권적 신분이 없으면 제3신분은 무엇일까? 전체이되 자유롭고 번성하는 전체이다. 제3 신분이 없으면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으며, 다른 신분들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한히 잘 되어갈 것이다.
 - 제3신분 대표자는 진정 제3신분에 속하는 시민 중에서만 선출될 것.
 - 제3신분 대표자의 수가 두 특권 신분 대표자의 수와 동일할 것.
 - 삼부회에서는 신분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투표할 것.

<<동아일보>> 1921년 5월 10, 11일, <사설:조선의 사회계급의 추이-제삼계급의 영향> (상),(하)
<<동아일보>> 1921년 8월 16일, 사설 <경제적 능력과 정치상 권리- 경제는 정치의 기초>

- 구라파의 역사를 일견하면 중세기 봉건시대에는 사회의 중심세력이 귀족 승려 계급에 있었고 근세기 입헌정치에 와서는 일변하여 상공 계급이 사회 중심에 처하게 되었으니 곧 귀족 계급은 권력과 존엄을 실추하고 그 대에 자본 계급이 권력과 존엄을 누리게 되었도다. 원래 도시의 발전은 봉건제도를 타파하는 한 큰 원인이 되며 도시의 발전을 따라 오는 상공업의 발전은 귀족의 세력을 멸살하는 큰 원인이 되나니사회의 세력을 획득하고 지위의 향상을 이룩한 상공 계급은 오직 사회적 세력과 지위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치에까지 권리를 요구하여 마침내 입헌정치를 실현하여 현대사회의 제반 조직을 완성하였도다. **불란서대혁명은** 제삼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지배를 구체적으로 완성한 것이요
- 현대의 정치적 중심은 ...유산 계급 즉 자본가에 귀한 것은 사실이라 이와 같은 시대에 처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이 정치상 권리를 요구한들 그 하등의 소용이 있으며 설혹 정치상 권리를 획득한들 경제적 능력이 무하면 또한 하등의 소용이리오

그런데 한국에서의 <제3신분>은 프랑스와 조금 다른 경로를 밟아서 탄생했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제3신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1차, 2차 두 단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근대화: 경기 및 충청 지역이라는 기호지방에 거주하면서 조선왕조들을 이끌던 양반사대부들이었습니다. 다시말해 **기호지역의 양반엘리트**들이 일본을 위시하여 서구적 문명의 충격에 가장 먼저 대응했습니다

-갑신정변, 동학농민전쟁, 갑오개혁, 광무개혁 / 거문도사건(1885.3-1887.2),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 한일강제병합(1910)

2차 근대화: 한국인들의 응전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새로운 사회변동의 싹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개항>은 조선왕조에서 거의 사라졌던 바닷길을 통한 해외무역의 길을 열었습니다.

호남에서 <진취적 지주>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또 <개항>은 한국 근대의 또 다른 요소인 **기독교를 <초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기독교는 **독립협회 활동 및 삼일운동에** 모두 깊숙하게 관여할 뿐 아니라 한국 근대의 여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방법론

- 1) 비교사: 여러 나라들의 농업의 상업화 과정(형태)과 근대 이행의 특징들 검토
- 2) 국제관계사: 개항, 식민지, 분단이 한국의 사회변동에 끼친 영향과 의의 – 한반도와 세계사의 관계의 메커니즘 이해

비교사

- 독재와 민주주의의 기원- Barrington Moore, 내재적 경로의 특징
- 대분기-Kenneth Pomeranz – 조선왕조의 국가성 – 동양과 서양 – 일본과 한국
- 진취적 지주 대 관료적 지주: <<농민혁명>>Jeffery paige

국제관계사

- <비지배적 종속관계>와 조선의 농업관료제
- 중화체제의 해체와 제국주의적 국제질서 – 세력균형과 집단안보
- 식민지로 전락과 그로부터의 해방은 한국과 일본의 양국관계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변동이라는 세계사 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국제관계사: 한국과 세계의 관계 변화 과정

1.0 중화질서: 이때 동양과 서양은 분리되어 있었다.

2.0 중화질서 대 세력균형의 국제질서의 병립에서 중화질서의 붕괴로 : 영국 주도, 청일, 러일전쟁,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 기독교 수입,

3.0 '세력균형' 에서 '집단안보'의 국제질서로의 이행기에 3.1운동이 전개됨. 호남지주와 기독교, 다원적 근대성, 일본 및 미국의 자본주의 근대성, 사회주의 근대성,

4.0 '집단안보' 대 냉전, 분단, 민족주의 분열,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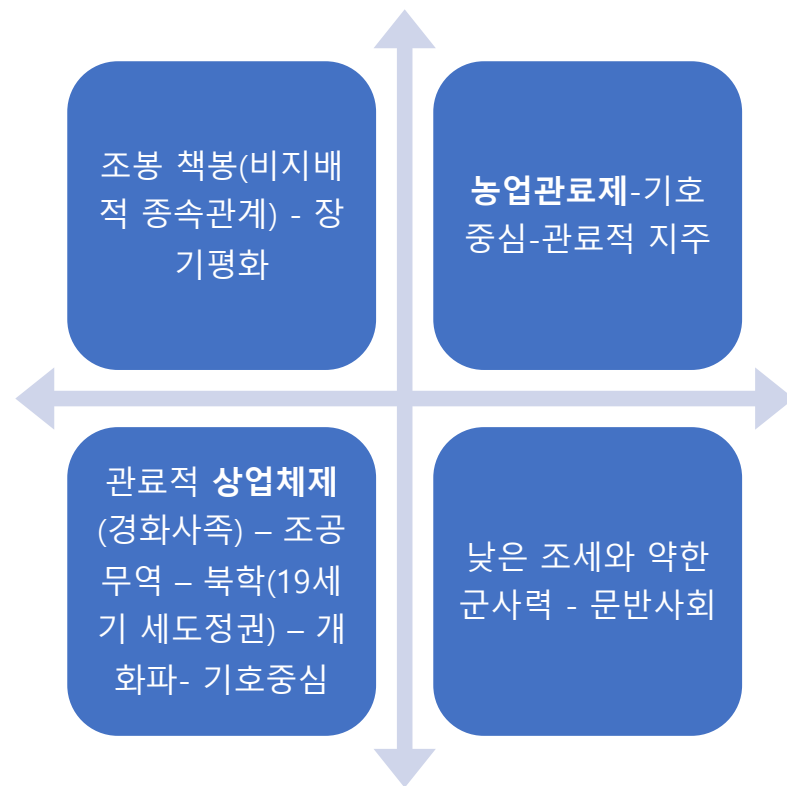
5.0 냉전붕괴와 신자유주의

국제질서 변동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1. 19세기 초 유럽(비인회의: 1815), 19세기 전반기 초 조선, 세도정권
2. 중국 개항(난징 1842, 텐진 1858), 일본 개항(1854), 조선 개항(1876)
3. 개항의 충격
 - 1) 조선왕조 중심, 기호 세력 중심의 개혁운동 – 갑신, 갑오개혁, 광무개혁
 - 2) 미국무역의 발달은 진취적 호남 지주의 등장 계기.
 - 3) 기독교 문명의 전래와 관서 세력의 성장 .
4. '전통'의 실패: 기호 세력이 주도하는 개혁의 좌절. 그 결과는 식민지
5. '근대문명을 주도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
 - 1) 호남 지주 세력의 정치적 사회적 진출, 기호세력이 설립한 중앙학교 인수. 기호인사가 설립한 경성직뉴 인수.
 - 2) 호남과 관서 세력과 3.1운동, 그리고 온건한 민족주의 운동과 국제질서 변동
 - 3)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사항들을 처리하는 문제와 한민당의 국제주의 노선,

- 구조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성(longevity)과 안정성(stability)



• 박규수(1807-1877)

중국을 옛날부터 전쟁이 있었지만 한반도는 그런 일이 없었다. 조선왕조는 훌륭한 임금이 많았으며, 임진년과 병자년의 두 번의 전쟁이 있었을 뿐이다. 지금의 백성들은 전쟁이란 말조차 모른다

• 이유원(1814-1888)

태평한 날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전투에 관한 일을 하려 하지도 들으려 고도 하지 않는다. 양반사대부 역시 그러하다(주5)

개항의 충격: 기독교와 고종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전문 14개조) 1조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다른 한쪽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을 한다”

1883년 보빙사

민영익과 볼티모아 제일교회 John. F. Goucher의 만남

1884년 선교윤희

1884년 6월 24일 선교사 맥클레이(Robert. S. Maclay) 서울 도착 - 김옥균을 통해 그들의 청원서를 전달

- 19세기 말 선교사 게일(Gale) (주15)

“조선은 지난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 같은 기간 일본에서는 기독교인 열 명을 만드는 데 그쳤고, 중국에서는 그 열 명을 만드는 데 거의 40년이 걸렸지만, 지금 조선에는 천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 이렇듯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조선도 응답하여 보여준 것이다”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주16)

서력 1904년으로부터 6년 동안에 신도가 갑자기 수십 만이나 증가하였으니, 이는 세계의 교회가 함께 경탄하는 바이다. 일본인이 이들을 가리켜 '배일파'라 하고 은영중 하나의 적처럼 여긴다

조선왕조-서구문명-민족운동-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기독교

-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1887년 3월 배재학당
1887년 여름 정동교회
- 상동교회: 민족운동의 거점
헤이그밀사단(이상설, 이준)
신흥무관학교(경화사족 이회영 등)
- 이승훈과 오산학교
신민회, 신흥무관학교
- 1897 <<독립신문>>이 전한 배재학당 방학식 풍경
영문 시험을 하는데 신흥우가 거리낌이 없이 한문보다 오히려 더 순통을 하니 좌상이 다 크게 칭찬을 하더라 ... 이승만이 영어로 조선 독립 문제로 연설을 하는데 뜻이 훌륭하고 영어로 알아듣게 하여 외국 사람들이 매우 칭찬들 하더라 학부대신 민종묵 씨가 협성회를 위하여 진보하라고 권설을 매우 유리하게 하니 좌중이 다 듣고 감사히 여기더라 ..
- 자신의 실력을 뽐낸 이승만·신흥우·양경복·노병선 등의 학생들은 약 1년 후에 전개되는 만민공동회를 이끄는 활동가들
- 주17

개항의 충격: 호남의 진취적 지주

- 기호세력이 세운 중앙학교 인수

1910년 9월에 기호학교는 유길준이 설립했던 '사립융희학교'와의 통합을 통해 재정난을 타개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로부터 약 석 달 후인 12월에 기호흥학회, 호남학회, 교남교육회, 관동학회 모두 중앙학회로 통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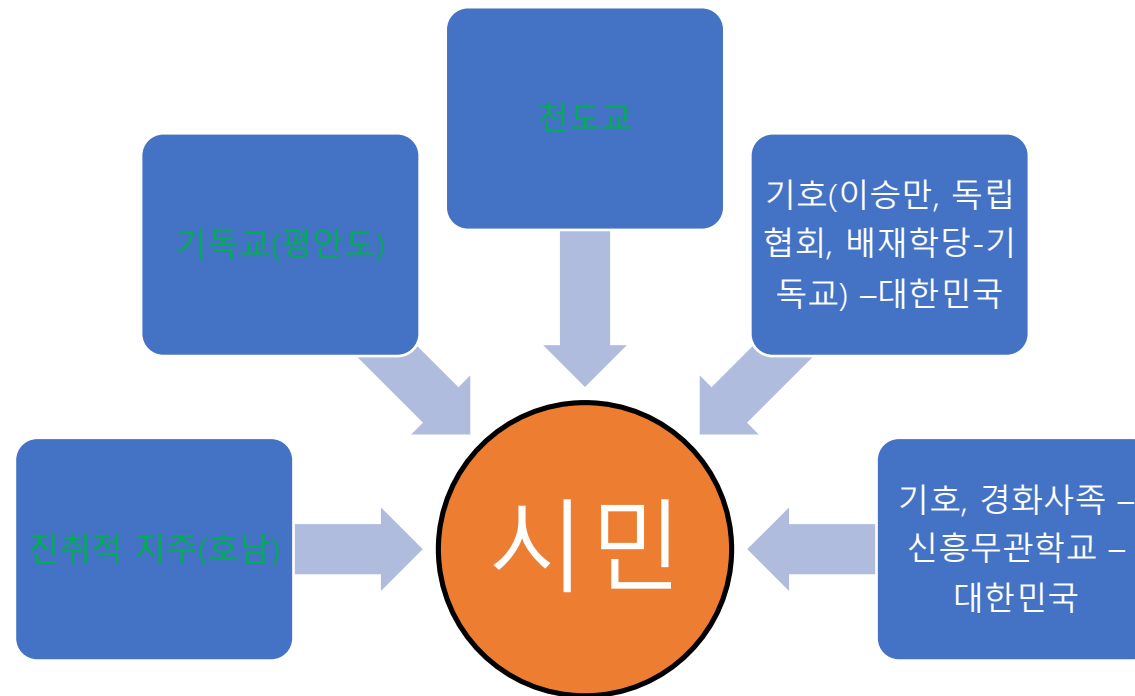
- 기호세력이 세운 경성직뉴(주) 인수

상충 지주는 관료 지주 출신 경성직뉴(주) 사장 윤치소 그는 사업의 리스크가 큰 2차 산업 매각, 지주 경영과 금전대부업에 집중. 그가 관여한 광업(주)은 1907년 군대 해산 때 실업자가 된 군인들이 전당포 영업을 목적으로 만든 조합으로 자본금은 3천 원

- 내륙의 상업이 해양 무역으로 확장되면서 진취적 지주 성장
- 조선왕조 관료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움
- 근대적 문명과 민족적 위기에 대한 감수성이 높음
- 유학과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엘리트층의 관계망 형성. 실질적인 부르주아지 2세대로 성장

시민적 민족주의와 3.1운동

- * 국제질서: '세력균형' 에서 '집단안보' 로 이행 시작 –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 * “재불차어이대(材不借於異代)”, 김윤식, 윤용구, 한규설, 박영효, 윤치호, 구체제 세력의 탈락
- * 고종의 장례식은 독립을 위한 항일운동이면서 **구체제(조선왕조) 장례식의 계기가 됨**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개항과 식민지를 경유하면서 형성된 근대 이행의 특징. 외적 충격을 받으면서 경로가 수정됨

- 개항기 이래 사회변동의 결과의 총결산.
- 국제질서의 변동, 세력균형 국제질서에서 집단안보의 국제질서로 이행하는 과도기
- 호남 진취적 지주층과 기독교 세력. 식민지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모습
- 이들은 민족주의 운동 진영의 주요 구성원이 됨
- 김성수와 이승훈
- 확실히 청산된 구체제: 시대와 인물의 교체 - 고종의 장례식은 구체제의 장례식. 구체제 인사들 3.1운동 리더가 못됨. 스스로 거부.

호남의 진취적 지주와 2차 근대화

- 중앙학교(기호세력이 설립) 인수: 조선왕조 엘리트인 기호세력이 포기한 사회적 책임을 계승한 것
- 보성전문학교 인수: 조선왕실과 천도교의 사회적 책임을 계승한 것
- 3.1운동 참여: 시민적 사회세력의 형성적 책임을 실천한 것
- 경성방직과 동아일보 설립 및 운영: 경제적 문화적 부문에서 근대화를 위한 실천적인 투자
- 그들 주변에는 사람과 이념이 모이고 문화형성을 위한 에너지가 모였다. 그리고 그 힘은 대한민국 건립의 인적 물적 사상적 자원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리더그룹이 되었다.

호남 진취적 지주의 역사적 의의: 호남 대 조슈(장주)

이토 히로부미와 김성수가 상징하는 것 ‘전통’과 근대, 일본은 전통 유산이 많고, 한국은 적다. 그 증거, 하나는 기독교, 다른 하나는 진취적 지주

❖런던의 관비 유학생들(일본)

① 1863년 5월 바칸해협 사건: 조슈의 패배

② 1863년 6월 조슈 5걸, 영국 유학을 떠남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정치)
- 이오누에 가로우(井上馨, 정치)
- 야마오 요조(山尾庸三, 공학)
- 엔도 긴스케(遠藤謹助, 조폐산업)
- 이노우에 마사루(井上勝, 철도)

❖동경의 관비 유학생들

유길준, 윤치호, 유정수, 서재필 등 기호세력
1차근대화 실패

❖동경의 사비 유학생들(김성수 (1908년),

송진우, 김병로, 현준호, 안재홍, 장덕수 등 호남세력 및 그의 동료들, 2차 근대화, 3.1운동, 대한민국

.

식민지 한국의 ‘도시의 주인공들’ - ‘33인’과 ‘17인’

- 내륙의 상업이 해양 무역으로 확장되면서 상업적 농업의 형태가 달라졌고, 기독교를 매개로 하여 미국을 경유한 서구 문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두 흐름은 농촌이 아니라 도시를 기반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해방 이후 의회주의의 기저적(基底的) 배경이 되었다.
-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가장 먼저 근대국가로의 전환에 성공했지만 도시를 기반으로 한 진보적 자유주의는 농촌을 기반으로 한 군국주의의 발호를 막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미약한 자유주의는 여전히 현대 일본 정치에 큰 영향을 준다
-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항장의 무역이 발달한 중국은 쑨원을 중심으로 한 신해혁명에 성공했지만 농업관료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농촌을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혁명을 거쳐서 전체주의 사회로 귀결되었다.

국제질서의 변동을 고려한 장기사의 관점에서 근대화 과정을 비교하기:
<제국 대 식민>에서 <자유주의>와 <의회주의>(민주주의, 공화주의)

- 개항과 식민지 - 실패의 역설, <실패>를 <진보>의 디딤돌로 만든 주체는 누구인가?
- 진취적 지주와 기독교에 의한 제2의 근대화 운동(3.1운동과 대한민국)
- <장기사>의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를 근대화의 한 과정으로 볼 여유가 생기고,
- 과잉된 <민족주의>
-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

1(지주, 자유주의)

- 일본(성공-제국주의, 신도와 전체주의)
- 한국(실패-식민지, 기독교와 자유주의)

2(농민, 전체주의)

- 중국, 미약한 자유주의(광동성의 손문) 몰락
- 북한, 부재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문명의 선도: 동아일보

- 1920년 4월 1일자의 창간사 「주지(主旨)를 선명(宣明)하노라」

1. “**조선 민중의 표현 기관**”이라고 한 것은 ‘단일적 전체로 본 2천만 민중의 기관으로 자임’하겠다는 민족주의의 발로였다.
2. “**민주주의를 지지**”하겠다는 것에는 민주주의를 ‘국체니 정체의 형식적 표준이 아니라 곧 인류 생활의 일대원리요 정신’으로 이해하고, 그 용도 역시 ‘국내정치에 처하여서는 **자유주의**요, 국제정치에 처하여서는 **연맹주의**요, 사회생활에 처하여서는 **평등주의**요, 경제조직에 처하여서는 **노동본위의 협조주의**’라는 정치사상이 현상되었다.
3. “**문화주의**를 제창”한 것에는 부의 증진과 함께 정치·도덕·종교·과학·철학·예술의 발달에 대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었다.

- 그들은 1919년 3월 1일로부터 일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문화주의를 구성원리로 하는 다성적(多聲的)이며 ‘**통합적인 민족주의**’를 표명한 것이었다.

단수에서 복수로: 정의들의 공존 모색

- 1920년대 국제질서 - 미국의 등장과 이를 의식하는 민족운동(온건),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주의 국가 소련을 의식하는 민족운동(급진)
- 티협적 운동의 전략(장기적 관점), 미국과 일본의 전쟁과 한국의 독립
- 온건한 민족주의와 합법투쟁
- 급진적 민족주의: 단재 운동론의 문제점.
- 서상일과 강동진(타협 대 비타협 구분의 문제점) 민족주의 운동의 다원성 문제, * 민족주의 운동사의 재구성 필요

1차 통합의 실패(분단)와 2차 통합(대한민국, 반공단정연합)

- 한민당: 진취적 지주층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 온건한 민족주의
- 이승만: 의회주의(한말 독립협회 급진파), 자유주의 공화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온건적 민족주의(외교노선), 해방 이후 의회주의 기반으로 하는 민주공화국
- 조봉암: 사회민주주의
- 기타 민족주의 세력들

2차 통합: 해방 직후의 혁명적 정세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공화주의) 체제를 수립 – 복수의 정의

시민교양-삼일운동 <선언서>

병자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무도함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현재를 꼼꼼히 준비하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 남을 시샘하여 쫓아내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어 있는 일본 제국주의 통치배들의 부귀공명의 희생이 되어 압제와 수탈에 빠진 이 비참한 상태를 바르게 고쳐서 억압과 착취가 없는 공정하고 인간다운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와 인도주의 그리고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맙시다.

-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방침연설(1948.9.30) 조봉암 농지개혁 발언(1949.4.1, 69차본회의)
- 헌법의 조항에 의거하여 ...먼저 소작제도를 철폐하여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의 원칙을 확립할 것이나 농민 대중의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균등한 농지를 적당한 가격 또는 현물보상의 방식으로써 농민에게 분배할 것입니다('제1대국회 제1회 제78차 국회본회의 (1948년 09월 30일)'(제 1회「國會定期會議速記錄」 78호
- 이것은(농지개혁) 여러분도 말씀하십시다마는 소작제도라는 이 수천 년 내려오는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예요. ... 우리나라의 봉건적인 사회조직을 근대적인 자본주의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 노력이옵시다.('제 1대 국회 제 2회 제69차 국회본회의 (1949년 4월 1일)'(제 2회「國會定期會議速記錄」 69호)

시민교양: 제헌헌법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諸制度)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상 또는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 1조).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 2조)
- . . .
-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제 86조).

대한민국: 다원적이며 포용적인 제도와 국가, 시민이 주도한 사회

- 진보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 독재, 쿠데타 등 위태로운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 자유로운 한국인들은 국가건설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민주주의 1.0 (이승만과 민주당)/ 민주주의 2.0(박정희 전두환과 민주당) / 민주주의 3.0(‘민주화’ 이후와 민주당) / 민주주의 4.0 (디지털문명과 포퓰리즘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 민주당)
- 민주주의 3.0 / 4.0 시대에 민주주의 1.0시대보다 과거에 대한 선택적 기억을 강화. 역사의 정치도구화, 역사인식의 속류화가 진행됨
- 어떻게 <민주주의 1.0 시대>를 재인식할 것인가와 ‘<시민>은 누구인가’는 연결된 문제일 수 있다.